

# 쿠팡이 울산과 함께 400명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갑니다

2024. 10. 18.

쿠팡 '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'와 '광주첨단물류센터' 오픈에 이어, [울산 지역에도 서버허브 착공](#)이 시작됐습니다. 서버허브는 물류센터에서 배송센터로 상품을 보내는 중간 물류시설입니다. 이처럼 쿠팡은 5000만 전국민 로켓배송 쿠키션 실현을 위해 지역 곳곳에 대규모 투자 중입니다. 동남권 로켓배송 권역 확대의 핵심 시설이 될 '쿠팡 울산 서버허브'를 소개합니다.



울산 시민들은 물론 전국 2170만 고객이 사랑하는 쿠팡 로켓배송. 주문 후 불과 반나절 만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한 로켓배송은 인공지능(AI)과 머신러닝 기술 기반의 전국 단위 물류 네트워크가 있기에 가능합니다.

쿠팡 물류 네트워크는 전국 30개 지역에 100개 이상 구축돼 있으며, 이를 통해 2024년 4월 기준, 전국 시군구 260곳 중 182곳에서 로켓배송 시행 중입니다. 전국 시군구 70%에 달하는 지역이 로켓배송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. 쿠팡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2026년까지 3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통해 전국 100% 로켓배송 생활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.



5000만 전 국민 로켓배송 시대를 위한 핵심 요지, 바로 울산입니다.

울산은 쿠팡 남부권 배송을 위한 최적의 물류 입지로,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(CLS) 1호 자체 보유 서브허브가 건설될 예정입니다. 서브허브는 물류센터에서 온 상품을 사전 분류해 배송캠프로 보내고, 판매순위가 높은 상품들을 보관하다가 주문 즉시 출고하는 중간 물류시설입니다.

울산 서브허브의 탄생으로 울산은 물론이고 경주, 부산 등 동부 지역의 많은 고객들이 더 빠른 로켓배송을 누리게 될 예정입니다.



울산에 거주하는 이성훈 고객님

**이성훈 고객님:** 지금도 빠르게 배송되는데 더 빨리 배송된다고요? 저는 울산 토박이인데요. 퇴근하고 나서 대형마트까지 가기는 번거로워 쿠팡을 즐겨쓰고 있거든요. 저 같은 울산 시민에게는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. 이제 쿠팡 없으면 못 삽니다!



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

울산 시민들이 반기는 만큼 울산광역시도 환영하고 있습니다.

**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:** 울산시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함께 지역에 4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듭니다. 특히 여성과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,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.



부산 서브허브 리더 박현우 님

지난해 울산광역시의 인구 순유출률은 전국 1위로 많은 청년 인구들이 떠난 상황이지만, 울산시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만드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만큼 이들이 재유입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.

**부산 서브허브 리더 박현우 님:** 저는 사실 울산 출신이거든요. 지금 근무환경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서, 울산 서브허브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



세종대학교 황용식 경영학부 교수, 제22대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

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주 6일 근무가 보편화된 택배업의 관행을 깨고, 격주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의무 휴무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 또한, 배송 인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 물품 분류 전담 인력 6,500여 명을 완전 직고용하고, 분류시설 자동화를 위해 2,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.

**세종대학교 황용식 경영학부 교수:**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으로만 편중되면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. 그렇기에 울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쿠팡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 울산이 물류 최적지로 검증되면서 향후 투자유치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앞으로도 쿠팡은 최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

취재 문의 [media@coupang.com](mailto:media@coupang.com)